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손영훈*

KT 경제경영연구소
changeworld@kt.com

새로운 성공 방정식, 스타트업

세계경제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2013년에 9월에 발표한 '2014 기술선도기업(Technology Pioneers)*에 선정된 기업 중 하나인 에어비앤비(www.airbnb.co.kr)는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이다. 현재 에어비앤비의 직원 수는 600명이 되지만 처음에는 조 게비아라는 웹디자이너가 남는 방을 인터넷을 통해 중개하는 아이디어에 착안해 만든 스타트업이었다. 2008년에 창업한 에어비앤비는 2009년 1~3월 동안 Y 컴비네이터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 기술, 마케팅, 재무 등의 보육을 받고 2만 달러(한화 약 2천백만원)의 시드머니를 투자 받았는데 현재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에 이른다. 실리콘 벨리라는 창업생태계에서 창의적인 창업자의 좋은 아이디어가 우수한 인큐베이터와 투자를 만나 2만 달러가 100억 달러가 되는 성공을 만든 것이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현) KT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특새에서 Major로!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2013), 성공적인 창업,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2013)

* 전 세계 벤처기업 중 기술력, 잠재적 발전 가능성, 인류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업 선정

** WSJ, "Airbnb Is in Advanced Talks to Raise Funds at a \$10 Billion Valuation", 2014.03.21

1. 창업생태계 구성요소

스타트업은 인큐베이터의 보육과 인베스터의 투자를 통해 지식/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실패하여 EXIT 또는 재도전하게 된다. 미 하버드대 로렌 게리 교수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는 실패를 ‘경험과 자산’으로 인식하며, 성공한 벤처의 평균 실패 횟수는 2.8회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의 경우 창업에서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창업 도전 기회는 1번을 넘기기 힘들었다. 최근 들어 선데이토즈, 앱디스코, 엔써즈 등 실패를 경험으로 재도전 하여 성공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선배 창업자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벤처1세대 멘토링센터를 2013년 9월에 개관했고, 민간과 함께 실패기업인 재도전펀드인 1,500억 원 규모의 재기펀드도 운영할 예정이다. 성공한 스타트업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창업생태계에 인큐베이터와 인베스터로 다시 참가할 수도 있다. 권도균 이니시스, 이재웅 다음 창업자, 장병규 네오위즈 창업자 등은 2010년 프라이머를 설립하여 엑셀러레이터와 엔젤로서 후배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의 주인공: 스타트업

스타트업이란 용어는 닷컴 버블(1995~2000) 이후 등장했는데, 당시에는 닷컴 회사들을 치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오늘날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규모의 회사 및 창업자를 말한다. ‘린 스타트업’의 저자 에릭 리스는 스타트업을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 4~5년간에는 스마트혁명 등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창업 열풍이 불어오면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신규 벤처기업이 1만개 이상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는 2.9만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1년 4월에는 정부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1인 창조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2012년 기준으로 약 29.6만개의 1인 창조기업이 있다. 창조경제 기조에 맞게 1인 창조기업에 대한 2014년 예산은 2013년 보다 늘어났다. 관할부처인 중소기업청은 2014년 1인 창조기

* 정책브리핑, ‘벤처1세대의 ‘성공과 실패’ 모두 배운다’, 2013.06.18

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13년보다 25% 증액된 352억 원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50% 증액된 150억 원에 배정하였다.

스타트업 보육: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는 신생아를 키우듯 갖 창업한 기업이나 예비 창업가의 성장을 돕는다. 창업보육, 공간, 시드머니, 노하우, 멘토링, 창업가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고 인베스터의 투자유치를 도와준다.

인큐베이터의 유형은 운영주체에 따라 정부운영, 민간운영, 기업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첫 인큐베이터인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가 설립된 1993년부터 2009년까지는 정부운영형이 전통적인 인큐베이터였다. 이후 스마트폰이 본격 도입되어 스타트업이 증가한 2010년부터 민간 및 기업 운영 인큐베이터가 생겨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정부운영 인큐베이터에는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이 있는데 비영리형이다. 민간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디캠프, 앱센터운동본부의 K스타트업 등 비영리재단을 중심으로 한 인큐베이터와 프라이머, 스파크랩 등 창업가 출신이 운영하는 인큐베이터가 있다. 기업이 운영하는 인큐베이터에는 KT의 에코노베이션센터, SK planet의 상생혁신센터, 네오위즈의 네오플라이 등이 있다. 특히 민간에서 운영되는 인큐베이터는 대다수가 엑셀러레이터로 정부운영, 기업운영과 구분된다. 엑셀러레이터는 인큐베이터의 한 종류로 기존 인큐베이터가 단순 지원, 투자에 그쳤던 반면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를 선별해 3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 보육한다. 실리콘밸리의 Y컴비네이터, 500스타트업스 등이 대표적이다.

스타트업 투자: 인베스터

인베스터는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를 조성하여 다른 인베스터 및 인큐베이터에 위탁한다. 유형에 따라 정부, 벤처캐피탈, 엔젤, 민간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직접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기업)과 함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운용사에 위탁한다. 벤처캐피탈은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엔젤은 개인 투자자나 투자그룹을 말하는데 1920년대 초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는 공연

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을 천사(angel)라 칭했다. 국내의 경우 닷컴 열풍이 일어났던 2000년대 초 IT분야에서 창업한 세대들과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장병규 본엔젤스 대표, 노정석 아블라컴퍼니 대표 등 벤처 1세대가 투자와 창업보육을 겸비한 엔젤이 되어 창업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 2011년 기준 국내 엔젤투자 규모는 296억 원으로 2000년 5,493억 원 대비 18분의 1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2011년 기준 엔젤 투자 규모는 225억 달러(한화 약 24조3천7백억 원)로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 291억 달러(한화 약 31조5천2백억 원)와 비슷하나 국내의 경우 엔젤투자 규모는 벤처캐피탈 규모의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엔젤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5천만 원까지 엔젤 투자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넓히기로 했다.

민간에서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아산나눔재단 등이 인큐베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2013

2. 국내외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전통적인 정부 지원 창업지원 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 www.bi.go.kr)는 1993년 정부 직접 운영으로 일부 지역에 준공되었는데 1998년부터 정부지원 형태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2014년 4월 기준 대학, 연구소, 지자체, 공공법인, 민간법인 형태로 전국에 277개 센터가 있다. 정부는 공공이나 민간단체에서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할 경우 소요자금을 지원해주고 운영 평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해주며 실질적 운영은 개별 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공간과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타 인큐베이터에 비해 입주기간(최대 5년)이 길다.

※ 서울시의 창업보육센터와 프로그램

2014년 4월 기준 서울시 내 창업 보육센터는 대학, 연구소, 지자체, 공공법인, 민간법인 등을 모두 합쳐 37곳이다. 그 중 대표적인 창업보육센터와 프로그램은 서울산업진흥원의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와 서울시 창업스쿨이다.

서울시 청년창업센터(2030.seoul.kr)는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과 인프라가 부족한 청년 1000~1300명을 매년 선발해 창업자금과 공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39세의 예비 청년창업가 및 창업 1년 미만 초기기업이다. 지원자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합격하게 되면 센터에 입주해 창업 활동비와 창업 공간, 창업 교육, 컨설팅, 금융기관과의 연계 보증,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 받는다.

서울시 창업스쿨(www.school.seoul.kr)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의 창업 실천 교육을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었는데, 체계적인 창업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개월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에 대한 기초와 등의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공 및 실패사례, 창업현장탐방 및 모의창업체험 등의 실천과정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다.

입소형 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start.sbc.or.kr)는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안산, 호남, 대구 경북, 부산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연수원 4곳에 위치하고 있다. 만39세 이하의 창업가 및 예비창업가가 사관학교형으로 입소 또는 준입소하여 1년 동안 제품 기획에서 기술 개발, 디자인설계,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양산까지 창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다. 수업료는 전액 무료이며, 제품 개발·시제품 제작에 이어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창업보육센터가 이미 창업한 기업이 입주하는 것에 반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가가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창업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ICT 분야 특히 SW 관련 스타트업 비중이 큰 엑셀러레이터에 비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가가 입소해 있다.

대학과 창업의 연계: 창업선도대학

창업선도대학은 대학가의 청년창업을 활성화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별 한국형 실리콘 벨리 육성을 목표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국 21개 대학이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있다. 창업선도대학은 해당 대학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예비창업가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대학생을 위해 창업 강좌를 개설하고 창업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전국 창업 동아리 수는 1,833개(2만 2463명)로 2012년 1,222개(1만8027명)에 대비 50%로 증가했고 재학생 중 대학생 창업 숫자는 407명으로, 전년(221명)대비 84%나 급증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창업선도대학을 2013년 18곳에서 2014년 21곳으로 확대 하였다. 또한 2013년 6월부터 뉴-스타트업 플랜을 가동하여 타 창업사업화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학교별 사정에 맞게 전용 창업공간, 150시간 이상의 창업교육, 1:1 전담 멘토링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창업 생태계 허브 구축: 디캠프

디캠프(www.dcamp.kr)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2013년 3월에 개관했다. 창업 생태계 허브 구축이 목표인 만큼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디캠프는 개관 전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매년 개최하는 축제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 스타트업 7팀을 이끌고 스타트업 네트워크 파티를 기획하여 전세계 개발자, 투자자를 초청하기도 했다. 입주 기

업들도 청년창업사관학교, K스타트업 등 타 인큐베이터 출신으로 다양한 기관과 제휴를 진행 중이다. 디캠프 내부는 입주팀 사무실외에도 80여개의 이동식 테이블이 비치되어 예비 창업가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는데 하루 평균 300여명의 예비창업가, 투자자가 디캠프를 방문하고 있다. 디캠프가 국내 최초의 엑셀러레이터는 아니지만 디캠프에 대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로 Y컴비네이터 등 실리콘 벨리의 성공적인 엑셀러레이터의 우수성과 국내 엑셀러레이터 도입의 중요성이 제고 되었다.

해외진출 목표: K스타트업

K스타트업(kstartup.com)은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앱센터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로 2012년 11월에 1기 10개 팀을 모집했고 2013년 7월에 2기를 모집했다. Google for Entrepreneurs가 운영비 전반을 지원하고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SK플래닛이 투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K스타트업은 10개 기업을 선정해 3개월간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도움(멘토링, 기술 지원, 사무실 제공, 법률·세무, 특허 컨설팅 등)을 준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SK플래닛은 선정 기업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적은 지분을 취득한다.

창업가 출신 운영: 스파크랩, 프라이머

스파크랩(www.sparklabs.co.kr)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회사의 대표들이 2012년 8월 국내에 설립한 회사다. 스파크랩은 스타트업에 2,70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최대 6%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3개월간 해외 각국의 멘토 80여 명이 노하우와 인맥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돕는다. 2013년 3월 데모데이 이후 입주 기업인 미미박스, 위플래닛, 노리 등 3곳이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150만달러(한화 17억원)가량을 투자 받았고 스파크랩은 2013년 5월에 아산나눔재단으로부터 5억원을 투자 받기도 했다.

프라이머(www.primr.kr)는 창업자 출신 대표 5명이 창업가 후배를 기르기 위해 2010년 공동 출자한 회사다. 프라이머는 기존에 있던 업체를 발굴해서 데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 초기 업체를 찾아 기업당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을 투자하고 경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프라이머 출신 스타트업으로는 온오프믹스, 스타일쉐어, 애드투페이퍼, 큐블릭, 핀포스터 등이 있다.

가장 성공적인 엑셀러레이터: Y컴비네이터

Y컴비네이터(www.ycombinator.com)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이자 국내 엑셀러레이터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회사이다. 설립자인 폴 그레이엄은 본인이 창업한 회사 바이웹을 야후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성공한 창업가 출신이다. 2005년 설립된 Y컴비네이터는 새로운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창업자를 뽑아 지분취득을 조건으로 1만~2만 달러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시킨 후 입주 4개월에 투자자를 초대해 데모데이(사업 발표회)를 갖는 집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졸업기업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 드롭박스(기업가치 100억 달러*)와 앞에서 언급한 에어비앤비이다. Y컴비네이터는 2005년부터 약 550여개의 스타트업을 보육하고 투자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투자한 상위 172개 기업의 가치는 778억달러(한화 약 9조원)에 달한다.

Y컴비네이터의 성공비결은 인재선발, 속도감 있는 프로그램, 막강한 네트워크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Y컴비네이터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은 50대 1에 달하지만 인터뷰 시간은 10분에 불과한데 창업 경험이 풍부한 Y컴비네이터 운영진이 지원자의 명확한 사업 구상과 열정을 보고 선발하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선발된 인원들은 3주내에 시제품을 만들어 내야하며 4개월에는 데모데이에서 투자자를 유치해야 할 만큼 빠른 속도의 성장이 요구된다. 셋째,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비공식적으로 Y컴비네이터에서 강연을 할 만큼 수준급 멘토들이 예비 창업가를 위해서 경험담을 알려주고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 또한 Y컴비네이터를 졸업한 창업자들은 1,100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모두 졸업과 함께 Y컴비네이터가 운영하는 내부 페이스북에 가입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성공한 졸업생이 EXIT 후 와이컴비네이터 운영진으로 참가하는가 하면 멘토로 활동하기도 한다.

정부 운영 창업지원 센터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

최근 창조경제 실행이 본격화 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창업지원센터에도 큰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학교기관 중심의 창업지원센터가 갖는 ‘관리형’ 운영형태의 한계를 벗어나 앞서 설명한 민간의 우수한 시스템을 적극 수용한

* Bloomberg, "Dropbox Value Said to Be \$10 Billion in BlackRock Funding", 2014.01.18

‘개방형’ 창업 생태계 구현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정책과 자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범위 확장, 아이디어를 가진 전 국민 모두가 창업할 수 있는 계층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은 창조경제포털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스마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검토와 멘토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창업 관련 행사나 지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출자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역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14년 3월 대전에 첫 센터가 개소되었고 정부는 향후 17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무한상상실(www.ideaall.net)은 일반 국민이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14년 4월 기준 전국 7개 도서관, 과학관, 우체국,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 227개 시·군·구 당 1개소 이상 구축할 예정이다.

드림엔터(www.dreamenter.or.kr)는 협업, 캠프, 세미나 등 예비창업가들의 네트워킹과 교육, 멘토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2014년 2월 개관하였다.

예비창업가는 센터 내 카페, 멘토링룸, 컨퍼런스 홀, 회의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전문가의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www.smicenter.or.kr)는 스마트TV 분야의 글로벌 앱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2014년 4월 개설되었다. TV 앱 개발자들을 위해 앱 개발공간, 교육장,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해주고 앱 검증, 등록 등 기술지원도 해준다. 또한 우수 앱 아이디어에 대해 개발비와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해준다.

3. 시사점

국내 한계를 넘어 글로벌로

국내 스타트업 창업생태계는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창업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국내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의 한계점은 크게 창업자 pool 부족과 국내 내수시장 한계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청년들의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선호도는 한 자릿수(5~7%)*에 불과하고 이전에 창업해서 성공한 선배들도 손에 꼽을 만큼 적다. 그만큼 우수한 인재가 창업 대신 안정적인 취업을 한다는 것이고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노하우를 전수해주거나 투자해줄 경험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창업자 pool이 적으니 정부나 벤처캐피탈에서도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찾기가 어렵다. 또한 국내 내수시장은 이미 기존 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 앱 시장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유료 콘텐츠 인식, 모방앱, 플랫폼 독점 등으로 인해 성과를 내기 힘들다. 그래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노려야 하는데 국내가 곧 글로벌인 미국의 스타트업에 비해서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창조경제를 국정 기조로 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도 증가하고 있고 관련 정부 기관 및 민간단체의 활동도 많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모바일 등 ICT 분야에서 큰 비용 없이 창업이 가능해져 스타트업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창업 동아리, 대학교 창업 강좌 등 이전보다는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환경이 조성되어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Start Small!

국내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창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즉 우수한 인재가 창업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창업이라 하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들이어서 실패하면 완전히 끝이라는 인식이 있다. 질 좋은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작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Y컴비네이터와 같은 미국 엑셀러레이터에서 창업가들은 초기 1~2만 달러의 작은 금액만을 투자 받으며 실패하더라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 오히려 실패 경험을 인정해 준다. 단, 창업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 No.24 '청년 여성들의 구직 창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 2013.09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수한 인재란 창업에 대한 열정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눈으로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창업지원은 구체적인 목적이 중요

정부 지원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고 판을 만들어준 다음에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야 한다. 요즈마 펀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표가 뚜렷하고 벤처캐피탈들의 학습과 참여를 유도했으며 관료적인 절차보다는 매니저의 전문적 역량을 중시하고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미래창조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 여러 부처에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 없이 정책적인 방향으로만 운영된다면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창업 지원을 양적 측면이 아닌 질적 측면으로 고려해야 한다. 창업 활성화가 결코 취업난을 대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소수의 역량 있는 창업가가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정부가 창조경제타운을 비롯하여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민관협력을 일원화,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의의가 있다.

창업 문화 조성

정부나 민간의 인큐베이터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창업자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주는 ‘판’이 되는 것이다. 행정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큐베이터가 창업자들만의 준거집단, 커뮤니티가 되어 스타트업, 멘토, 투자자 등이 공동체 안에서 자생적으로 뭉쳐지고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입시학원이나 과외가 명문대 입학에 도와줄 순 있어도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어 줄 수는 없듯이 일방적인 주입식 지원으로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는 없다. 인큐베이터는 창업자를 관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창업자는 정해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인큐베이터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문화가 형성되면 창업자는 인큐베이터를 졸업하여 성공한 이후에도 멘토, 투자자로 다시 참여하게 되고 생태계는 점점 더 발전 할 것이다.

* 한국국제경제학회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2012